



전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지부, 코로나19 성금 전달

(사)전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지부(지부장 유봉식)에서는 지난 14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재난성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후원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정 기탁 처리 후, 익산시 저소득층 중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가정에 지원될 계획이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유봉식 지부장은 "작은 손길들이 모여 큰 희망을 키울 수 있다면 언제든 그 작은 손길이 되고 싶어서 부디 희망이 썩을 수 있는 곳에 사용돼 달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창경찰, 치안고객 만족도 향상 토론회 개최

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최근 고창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계·팀장, 파출소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112신고처리 치안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민원인을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경찰관이 조금 더 신속하고 친절·공정하게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 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했다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황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익산시 황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옥산)는 4월부터 12월까지 25주 동안 10가구에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은 스스로 식사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일주일분의 국과 5종류 가량의 반찬을 주 1회 제공함으로써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하여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밑반찬을 직접 배달해줌으로써 정서적 안부 확인 및 생활실태 점검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문혁 황등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

익산소방서, 주택화재 초기진화 성공한 시민에게 표창 및 소화기 전달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7일 소화기를 사용하여 주택화재의 초기진화 성공한 박명환(60세, 남, 글로벌축복교회목사)씨에게 더블보상제로 표창 수여와 소화기 2대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한 경우 감지기과 소화기를 두 배로 지급하는 제도로 재산과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된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위한 소방서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상자인 박씨는 지난 7일 저녁 8시경 신흥동 교회 사택 욕실에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와 연기나 확인해보니 욕실 콘센트 주변에서 불이 붙어 타고 있는 상태였다.

주택 내 관계인이 거주하고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가정에 소화기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날의 생생함을 전했다.

또, 수상소감으로 박명환 씨는 "소화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며 모든 주민들이 꼭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농업인의 행복 파트너, 1522-5200 전화주세요"

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배인태)는 최근 부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행복콜센터 전용 전화기 50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취약 계층 농업인 댁에 개별 방문해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농업인행복콜센터는 70세 이상 취약 계층 농업인에게 말벗 안부전화와 생활 불편사항, 소득증대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농촌 어르신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전용 전화기는 어르신들이 전화번호 암기 없이 농업인 행복콜센터 서비스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112와 119에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단축버튼이 탑재되어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영원면, 코로나 19 예방 방역 자원봉사자들 '앞장'

정읍시가 매주 '일제 방역의 날'을 지정·운영 중인 가운데 영원면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영원면 여성 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 영원면 자율방범대 회원들은 지난달 13일부터 매주 1회 영원면 소재지를 방역 소독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의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버스승강장과 상가, 우체국, 농협 등 주민들의 발길이 잦은 곳에 방역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철영 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자발적인 방역 활동에 참여해 주신 봉사자들 덕분에 주민 안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원면 여성 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 영원면 자율방범대 회원들은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



역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오수면, 봄꽃 식재로 코로나19 극복 응원

임실군 오수면이 봄꽃을 식재해 가로 환경을 개선했다. 오수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활기 넘치는 지역 이미지를 불기운을 전하기 위해 도심지 가로 화단에 데이지꽃 5,000여 본을 식재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종안 오수면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주민들이 가로변의 봄꽃처럼 생기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식재했다"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 면민들에게 감사드리고,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수면은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매년 봄, 가을, 겨울에 경관식물을 식재하며 주민들에게 힐링을 제공해 나가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인재키우기 장학금 잇따라 ... 고창군장학재단에 기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고창인재키우기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을 강성모(전 고창군청 건설과장)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창군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고창인재 키우기에 뜻을 더했다.

강씨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꿈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고창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사회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고창을 임정례씨가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고창인재키우기에 마음을 더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